

사설

조계종명 도용 사찰 정리하자

대한불교 조계종이 지난해 9월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5천여 곳의 사찰 사업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조계종의 명의를 도용하는 유사조계종 사찰이 2300여 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종명은 그 종단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역사이자 문화의 응축인 것이다.

조계종명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계종의 종헌종법을 호시하고자 한다 면 굳이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찰사님들은 조계종의 관리와 감시의 통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적 사회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교계 전체 내지 조계종의 공공성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일반신도들이 조계종 사찰로 오인하고 다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3백여 곳에 이르는 무적승려들이 운영하는 사찰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조계종단의 통제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면에는 조계종 자체의 책임도 있다. 종단 호법부에 사법권은 없지만 지속적인 감시와 정화활동이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한 계도와 공고, 사법적인 대응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적이 없다는 점은 종단 스스로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점이다. 차체에 조계종단은 거종적 차원에서 조사와 대응에 나서야 하리라 본다. 전법도생은 정법으로 가능한 것이다. 사이버 논리는 결국 정법을 소멸하게 만든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반언론의 스님비하 "심각"

최근 일간 신문의 만평이나 만화가 스님을 회화화 하는 등 불교를 비하하고 폄위를 실추시키는 경우가 있어 우려감을 금할 수 없다.

비록 근자의 정치적 상황에 빚댄 만평이긴 하나 대중의 의식,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메이저 신문인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에서 성직자, 또는 스님을 만평에 등장시켜 회화화 하는 등의 사례 갖지 못한 발생에는 어이없음을 느끼게 된다.

염연한 정교분리의 사회에서 정치상황에 느닷없이 성직자를 등장시키는 것도 엉뚱해 보이거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나 있는 것인지의 구구심을 갖게 한다.

더욱이 스포츠 일간지 'goodday' 3월29일자 만화 '바이러스'는 그 천박스러움에 노여움을 넘어 연민마저 느끼게 한다. 그 연민은 저질적이고

외설적인 변태성과 천박스러운 인간 심성에 호소하지 않고서는 만화가로 설 자리를 갖지 못한다고 믿는 그 의식 수준에 대한 것이며, 황폐한 그들의 정신세계에 대한 것이다.

불교는 자신과 중생의 근원적 구제에 먼저 관심을 갖는 종교다. 많은 경전에서도 남의 허물을 탓하지 않는 덕목을 가르치고 있다. 이제 다양성을 지니게 된 현대 사회에서 불교는 무지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무차별적 모멸이나 폄하 훼손에 대해 최소한의 목소리라도 내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다. 조계종 종교평화대책위의 세 신문에 대한 공식 사과 요구는 그래서 정당하다.

우리는 그들의 진심어린 사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불교계도 승속 간에 불자의 폄위를 유지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출가연령 40세 제한 찬·반 '팽팽'

교육법개정안 중회상정 "충분한 의견수렴 합리적 방안 모색"

출가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한 조계종단 내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9면)

조계종 교육원은 3일 교육원장실에서 제58차 교육원 회의를 열고 행자교육원 수화(修學) 자격을 현행 '15세 이상 50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40세 이하'로 연령을 낮추는 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원은 이 개정안을 10일 열리는 중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원장 무비스님은 "나이가 많은 행자들은 교육하기도 힘들고, 강연에도 잘 가지

않는 폐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50세가 넘어 비구계를 받는 경우도 생겨 포교에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원 자료에 따르면 1996 이후 현재까지 행자교육원 이수자가 가운데 30~40대가 60%를 넘고 있으며, 40대만도 20%에 달하는 등 20대 출가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10여년 전과 비교해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승가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원과 강원, 울진 등에서는 승가교육의 질을 높이고 승가 위계를 위해서도 출가연령을 낮

추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승공사 출신장지현스님은 "승가는 평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곳인데, 나이 많은 출가자가 이것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며 "차라리 출가를 허락하되 사미계만 수지하고 수행에 몰두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상당수 중회의원과 사찰 주지 등은 사회가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고, 평균 학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출가자들의 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또

한 승가교육의 편의성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발심 출가자들을 모두 받아들였던 부처님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출가연령을 낮추는 것은 행자들이 사찰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능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며, 결국 출가자들이 줄어들어 승가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계종 총회 교육분과위원장 황적스님은 "선부르게 판단하기는 힘든 문제"라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종무행정 안내책자 증보판 발행 배포

1994년 발간 이후 4년 만에 종무행정 안내책자 증보판이 재발간됐다.

증보판에는 그동안 변화된 중앙종무기과 종무행정의 내용, 업무절차와 방법, 유의사항, 양식 및 견장을 적시하여 종단 내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 처음 종무에 임하는 사람이라도 쉽게 익히고 숙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 신도법개정에 따른 신도 기본교육 및 신도전문교육 시행안과 전문교육 기관 인가 절차와 각종 선거관련 업무 등 18건의 업무를 새로이 등재하였으며, 추가 양식 50여건 및 전반적인 업무처리 설명을 보완했다.

종무행정안내책자는 사찰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문의는 02-720-5861. 김원우 기자

조계종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업소문 중국 종교사무국장 등 8명의 중국방문단은 3일부터 5일까지 법주사와 불국사, 해인사, 통일전망대 등을 둘러본 뒤 6일 귀국했다.

불국사등 참배...기와불사 동참도

방한 중국 종교사무국장 일행 6일 귀국

3일 오전 법주사를 방문한 중국 방문단은 대불을 보고 놀란 표정을 드러냈다. 업소문 종교국장은 주지스님과 환담 중 반야심경 병풍을 보고 주신숙 산서성 민족종교 사무국장에게 반야심경을 한번 봉독해 보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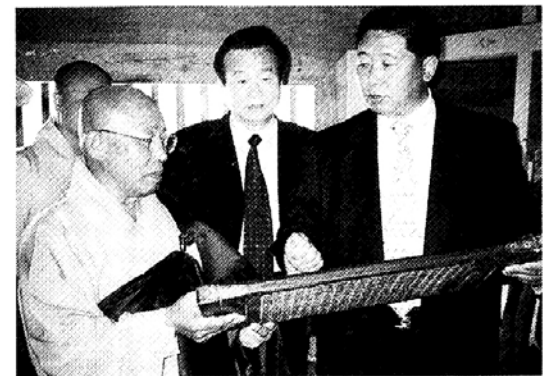
4일 오전 석굴암에 도착한 중국 방문단은 석굴암 내부에 들어

가 부처님께 향을 올리고 반야심경을 봉독했다. 관람을 마치고 나오면 업 국장은 불국사 기와불사에 동참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해인사에 도착한 방문단은 세린 주지스님의 안내로 잠시 경내를 둘러본 뒤 주지스님과 환담을 나눴다. 그 자리에서 팔민대장경 중 반야심경이

새겨져 있는 모조 경판을 선물로 받았다.

이에 앞서 2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예방한 업소문 국장은 "중국 정부는 달라이라마가 한국을 방문해 종교활동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정대 총무원장은 확답을 피했다. 남동우 기자



업소문 중국 종교사무국장(맨 오른쪽)이 해인사 장경각에서 팔민대장경에 대해 주지 세린스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현대' 만평

김영민



함께 손잡고 인류를 부처님품에

제19회 불교미술대전 24~26일 작품접수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회(위원장 정대)는 불교미술 전동의 계승 발전과 창작 활성화를 위해 제19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을 개최한다.

공모부문은 전통부문(회화, 조각, 공예, 서예) 현대부문(명연, 입체)으로 나뉘며, 작품접수는 24일부터 26일까지이다. 한편 시상 작품전시회는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예술의전당 미술관 3층에서 개최된다. 문의)02-739-1830. 김원우 기자

대전·충청권 본말사 주지 연수 170여명 참석, 환경문제 인식고취 중점

대전·충청권 본·말사 주지연수가 4-5일 이틀간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열렸다.

법주사, 마곡사, 수덕사 본 말사 주지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수회는 '불교문화재 보존 관리와 국고보조금 운용' '신도조직화와 활용방안' '불교 환경활동 현황과 생태사찰 도구' 등의 강의로 진행됐다. 특히 '불교환경활동' 강좌에서는 두레 생태기행 김재일 회장이 사찰환경

문제와 북한산 문제 등 자연환경 문제에 대해 강연,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켰다.

한편 이번 연수회는 예년과는 달리 80%의 참석률을 보였다. 작년까지는 평균 60%대에 머물렀었다. 이는 올해부터 주지연수를 받지 않을 경우 주지 재임용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 본말사 주지는 임기 4년 동안 매년 한 차례씩 주지연수를 받아야 한다. 한명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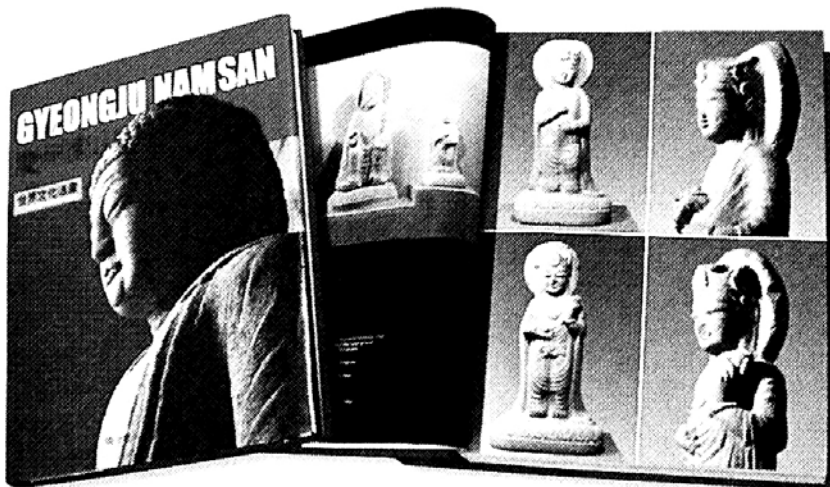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

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과 관련된 문의나 투고, 의견제기는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신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합니다.

제보전화: 722-4162 FAX: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慶州南山 - 세계문화 유산, 우리나라 불교문화의 원류 그 방대한 자료를 완전을 컬러 특대판형 전 2권으로 간행



2권 1세트 23만원

朝鮮日報

'신라 역사박물관' 경주 남산의 모든 것이 책, '경주남산'은 말 그대로 경주 남산의 모든 것을 담은 야심 차고 우직한 기획의 결과이다. 도판과 해설 등 2권의 책은 어린이들은 듣지도 못한 만큼 무겁다. 그 무게는 그대로 신라 천년의 역사가 갖는 무게로 느껴진다. 140쪽에 이르는 절터, 80여 구의 불상, 90여 기의 석탑, 13기의 왕릉, 4개의 산성, 중요문화재 사진과 탁본 실측자료 등 무려 800여 점이 실렸다.

중앙일보

'골마다 불상·석탑 산이 절이로다' 4년여 현장조사 '경주 남산'완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www.gcp.go.kr)가 지난 4년간 조사를 맡았으며, 그 결과가 '경주 남산' (23만원)이란 책으로 최종 정리돼 최근 출간됐다.

4년간 2백여 차례 현장을 조사한 결과 확인된 문화재는 모두 6백 72건. 절터는 1백 47개소, 일제시대 조사 결과의 두 배나 되며, 골짜기마다 2곳 이상의 절이 들어서 있었던 셈이다. 돌로 만든 부처와 보살상은 1백 7구, 석탑은 모두 96기. 그간 확인되지 않았던 왕릉과 비석 등을 찾아냈다.

동아일보

남산의 불교유적을 비롯해 선사유적, 신라왕릉, 고려·조선시대 유적과 유물, 그리고 현재까지도 남산지역에서 행해지는 민속의례, 남산의 수려한 자연유산 등을 모두 담았다. 도판 1권·해설 2권으로, 특대판형에 총 700여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다. 5년간 200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물의 결과이다.

釜山日報

- 세계 문화유산 '남산'의 모든 것 2권에 오롯이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종합 도록은 관련 학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일반인들에게도 보다 쉽고 진지하게 남산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게 하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보신문

"한국불교 원류 한 권으로 응축"

이번에 발간한 종합도록은 지난 98년 경주 지역에 대한 5개년 정비 사업의 첫 번째 사업으로 실시된 남산 정비사업의 결과물이다. 사진만을 모은 도판본은 지난 2000년도 호주 케이트에서 열린 유네스코 전체 회의에 자료로 제공돼 남산을 포함한 경주 일대가 경주역사유적지구로 묶여 세계문화유산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佛敎新聞

- 경주 남산이 책갈피에 '꼭' -

불교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신라의 영산이며, 우리 민족의 성소인 경주 남산이 책속으로 그대로 옮겨져 있으며 골짜기마다 간직한 신라인의 불상(佛)과 예술 혼은 책은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

현대불교

- 골마다 절터, 바위엔 불보살 -

경주 남산은 우리 나라 미술사학계의 대부 고유섭이 "한국 불교의 원류를 찾고자 한다면 경주 남산에 가 보아라"고 했을 정도로 우리 나라 불교 문화유산의 보고다.